

2024. 3. 12.(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장	정 여 원	2133-2410
보행자전거활성화팀장	장 일 진	2133-2421
담당자	박 재 훈	2133-2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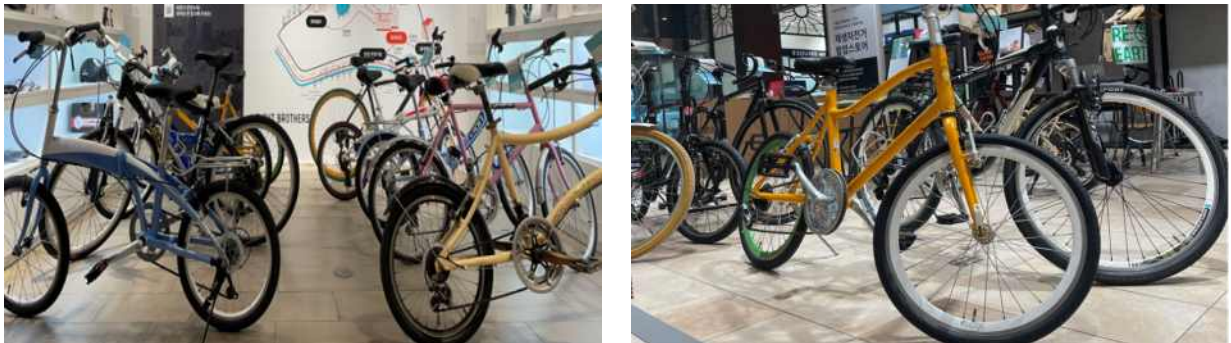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저소득층에 재생자전거 1,000대 무료 지원

- 서울시-티머니복지재단-서울광역자활센터-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보호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재생자전거 1천대 지원...이동권 증진·여가생활 활성화
- 탄소 저감부터 사회공헌까지 사회 선순환 효과,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

- 서울시가 저소득층 및 보호아동 등 교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생자전거 1,000대를 무료로 지원한다.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서울시 대표 정책 ‘재생자전거’를 사회 환원과 연계해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 서울시는 ‘2024년 취약계층 대상 재생자전거 보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 협약은 지역 내 활발하게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티머니복지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4자간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윤보영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 백종이 티머니복지재단 사무국장,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은용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했다.
- 행사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취약계층 대상 재생자전거 보급 지원사업’은 도로나 자전거주차장 등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보호아동, 저소득층 등 교통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생활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재생자전거란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한 뒤,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선별해 재활센터에서 새로 재생산한 자전거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13개 재활센터와 협업하여 재생자전거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자전거 사진

- 지원규모는 재생자전거 총 1,000대로, 재생자전거 생산속도를 고려해 상하반기 500대씩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 아동, 저소득층 등 다양한 지원 대상자들이 자전거 문화를 누리고, 단거리 이동 시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추진 과정은 협약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요 파악부터 대상자 선정, 보급 등으로 이뤄진다. 티머니복지재단의 전액 재정 지원으로 서울재활센터에서 재생자전거를 생산하며, 생산된 재생자전거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조사 및 선정 완료한 지원대상 시민에게 재활센터가 직접 전달한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 과정을 총괄한다.

- 시는 그간 서울지역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및 자활센터 등과 함께 보호 아동 등에 재생자전거를 지급하며 사회 활동에 나서왔다.
 - 티머니복지재단의 재정 지원은 재생자전거 80백만원 수준으로 재생자전거 1천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재생자전거 지원 협약은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증진, 자활센터 근로자 소득 증대, 재생자전거 활성화와 탄소 저감까지 교통 복지 환경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를 중심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 백종이 티머니복지재단 사무국장, 은용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왼쪽부터) 협약식 기념촬영 중인 정여원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 윤보영 교통기획관,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 백종이 티머니복지재단 사무국장, 은용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